

# 한국적 칙릿의 특성-정이현 소설의 자기 풍자

이선옥\*

## 「차례」

1. 머리말
2. 중심모방과 그림자 도시의 헛것 이미지 - 『달콤한 나의 도시』
3. 몸을 통해 각인되는 욕망과 그림자 - 『낭만적 사랑과 사회』
4. 자본으로서의 몸에 대한 자기풍자
5. 마무리말

## 〈국문초록〉

칙릿은 문화번역으로서의 의미를 지닌 장르이다. 여성의 성과 사랑, 결혼, 일, 우정 등 일상의 갈등과 성장을 다루는 특징을 지닌다. 미국의 시리즈물인 『섹스 앤 더 시티』류의 작품들이 소개되면서 한국 소설계에도 등장한 이 장르는 늘 ‘된장녀 담론’이라는 비판과 ‘여성성장서사’라는 옹호가 대립되어 왔다. 이 논문에서는 정이현 장편 『달콤한 나의 도시』와 소설집 『낭만적 사랑과 사회』를 대상으로 칙릿의 한국적 변용을 살펴보았다. 정이현은 중심모방의 삶을 그림자도시로 그려내고 그림자의 세계에 갇힌 여성인물들을 냉소적 주체로 그려내고 있다. 주변부 여성현실에 대한 자조적인 자기풍자로 판단된다. 그러나 자기 몸과 화해하고 맨 몸의 육체를 대면하는 것으로 풍자의 세계가 폐쇄되지 않을 가능성도 엿보인다. 진정한 문화번역이 그대로의 번역이 아니라 국경을 넘어 달라지는 정

\* 숙명여대 의사소통센터 조교수

치적 효과를 생산하는 것이라면 정이현의 칙릿은 주변부세계의 중심모방이 지니는 복제된 삶에 대한 자기풍자의 의미를 생산한다.

핵심어: 정이현, 칙릿, 포스트페미니즘, 매력자본, 문화번역, 자기풍자

## 1. 머리말

이 글은 정이현의 작품을 대상으로 한국적 칙릿 작품의 가능성과 한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대상작품은 『낭만적 사랑과 사회』(문학과지성사, 2003)와 『달콤한 나의 도시』(문학과지성사, 2006)로 삼았다. 장편 『달콤한 나의 도시』는 칙릿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장르적 구성에서도 칙릿의 특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작품이지만 『낭만적 사랑과 사회』는 단편집이고 <섹스 앤 더 시티>식의 칙릿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 때문에 왜 두 텍스트를 정이현의 칙릿을 분석하는 데 비교대상으로 삼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이 두 작품을 비교해 보면 소재면에서는 여성의 성과 사랑, 일과 일상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담고 있어서 거의 유사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그러나 『낭만적 사랑과 사회』는 극도의 냉소와 어두움이 작품집 전체에 깔려 있다. 이 작품은 마치 밝음을 가장한 칙릿의 음화같은 역할을 하고 있어서 함께 분석해 보면, 여성의 성과 사랑, 일과 우정을 다루는 칙릿의 여성성장서사에 대한 정이현의 관점과 한국적 변용의 한 예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의 칙릿의 생산과 붐의 시작은 2005년 드라마 <내 이름은 김삼순>(MBC)의 큰 인기와 더불어 2006년 정이현의 『달콤한 나의 도시』가 발간과 함께 드라마화(2008년 SBS) 되던 시기라 볼 수 있다. 칙릿은 2,30대 독신 여성들의 일과 사랑, 일상을 다룬 여성소설장르로 2000년대 초반 미국드라마 <섹스 앤 더 시티>가 한국TV에서 방영되면서 알려지기 시작했다. 칙릿의 장르적 특성이나 한국의 유입과정 등에 대해서

는 다음 장에서 자세히 다루기로 하겠다. 이후 영화 <브리짓 존스의 일기>나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가 개봉되면서 칙릿은 한국독자들에게도 상당히 익숙한 장르가 되었다. 그러나 신드롬적인 인기는 브리짓 존스의 똥똥한 노처녀 이미지를 그대로 닮은 <내 이름은 김삼순>의 김삼순 이미지의 인기 이후로 보인다. 칙릿은 이후 2008, 9년 정도까지 짧은 기간 붐을 일으키고 대중의 관심에서 멀어진 장르이다. 짧은 기간이지만 여성들이 주로 읽는 일과 사랑, 일상의 이야기가 왜 그토록 문학적 반향을 일으켰는지에 대해서는 지금도 많은 연구자들의 관심이 되고 있다. 칙릿의 인기는 문학상의 수상소식으로 이어졌는데, 2007년 소설 이홍의 『걸프렌즈』가 오늘의 작가상을 수상했고, 서유미는 『판타스틱 개미지옥』으로 문학수첩 작가상과 『쿨하게 한 걸음』으로 창비장편소설상을 연이어 수상했다. 2008년 백영옥의 『스타일』이 세계문학상을 수상하며 가히 칙릿 붐이라 부를 만한 문학적 현상을 일으키게 된다.<sup>1)</sup> 출판사들이 주관하는 문학상에서 칙릿을 주목한 이유는 장편서사의 새로운 출구가 된다는 점 때문이었다. 주로 보편주체인 합리적 주인공들이 이끌어어나가는 선조적이고 성장적인 서사를 추구해왔던 한국의 장편소설들이 더 이상 소비자본주의의 파편화된 일상을 살아가는 무기력한 군상들을 담아내지 못한다는 반성이 담겨 있었다. 생산주체가 아닌 소비주체로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노동-소비의 풍속적 기록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이 소설들은 새로운 주체의 탄생이라 평가되기도 했다. 그렇다면 왜 그토록 빠르게 칙릿 붐이 사라진 것일까.

이 솔직하고 깨끗한 여성들의 이야기는 외환위기 이후 심화된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여성들의 공감을 얻으며 전성기를 구가하다가, 2008년을 기점으로 대중적 관심에서 멀어졌다. 2009년 베스트셀러 칙릿을 원작으로 한 SBS <스타일>, 전작 <결혼하고 싶은 여자>를 통해 칙릿 열풍을 주도했던

1) 한국적 칙릿의 전개과정에 대해서는 이지연 『한국 칙릿의 전개과정과 특질 연구』, 동국대석사논문, 2011, 17~26쪽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다.

김인영 작가의 2010년작 MBC <아직도 결혼하고 싶은 여자> 등이 연이어 실패한 것이 한몫을 했다.

하지만 그보다 결정적인 쇠퇴의 배경에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불황의 장기화로 더욱 악화된 고용 현실이 작용한다. 기본적 생존마저 위태로운 상황에서 칙릿을 비롯한 자기계발서사들은 쇠퇴하고, 극단적인 서바이벌 서사나 힐링의 서사가 그 자리를 대체한 것이다. 특히 여성들은 남성보다 극심한 고용 불안에 시달리게 됐다. 지난 6년간 남성 비정규직 비율이 감소할 때 여성의 비율이 49%에서 53.6%로 증가했다는 한국노동연구원의 ‘2013년 비정규직 노동시장 특징’ 보고서 항목은 그러한 현실을 단적으로 말해준다.<sup>2)</sup>

위의 평론에서 지적한 것처럼 한국에서의 여성독자는 뉴욕의 켈리(<섹스 앤 더 시티>의 주인공)는 될 수 없는 것이다. 고용불안과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으로 빠르게 밀려나고 있는 여성노동의 현실이 소비와 자기계발, 자기성장서사로만 설명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된다. 애초에 한국에서의 칙릿이 중심세계에 대한 모방과 욕망의 환타지에서 출발한다는 점에서 보면, 주변부 여성노동의 현실이 그 그림자로 배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욕망과 좌절의 양가적 감정이 정이현의 소설에는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다. 특히 칙릿 소설이라 볼 수 있는 『달콤한 나의 도시』와 단편집 『낭만적 사랑과 사회』를 비교해서 검토해 보면 여성들의 환상과 현실의 양가적 모습이 잘 나타난다. 이 글에서 이 두 작품을 분석하려는 이유도 칙릿의 한국적 특성과 쇠퇴의 원인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작품이기 때문이다. 정이현의 두 작품은 2, 30대 독신 여성의 일과 사랑, 결혼을 둘러싼 욕망과 좌절을 적나라하게 그려낸 소설로 꼽힌다. 특히 우리나라 작가 중 드물게 서울 그것도 강남의 정서를 작품화하는 작가<sup>3)</sup>로 과잉된 소비사회

2) 김선영, 『칙릿 열풍, 그 이후』, 경향신문, 2014.1.10.

3) 심진경은 정이현 소설의 인물들에서 강남이라는 카테고리라는 일종의 사회적 고정

의 욕망을 여성주인공을 통해 그려내는 데 탁월한 감각을 지니고 있다. 그것이 그녀의 작품이 소비사회의 새로운 주체<sup>4)</sup>들을 그려내는 방식에서 한국적 특성을 설명할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둘째, 그간 칙릿의 분석 초점은 포스트 페미니즘의 여성성장서사인가 서구주류세계 여성의 삶에 대한 동일화 욕망인가에 대한 논쟁이 주로 이루어져왔다. 우리나라에서는 포스트 페미니즘의 논쟁이 본격적으로 진행된 바 없으나 서구 영미비평계에서는 칙릿을 중심으로 여성성의 적극적 발현과 자기결정권을 강조하는 새로운 페미니즘의 경향에 대한 논의가 포스트 페미니즘이라는 용어로 논의된 바 있다.<sup>5)</sup> 포스트 페미니즘은 젊은 여성들의 이상적 여성상이 페미니즘과 페미니티의 합 즉 성공, 존경과 함께 여성성을 수락하는 방식으로 구성되고 있는 경향을 반영한다. 수잔 더글라스는 이러한 새로운 여성상을 '각성한 섹시즘(enlightened sexism)'이라는 용어로 분석한 바 있다.<sup>6)</sup> 이러한 여성상의 등장에 대해 연애, 성, 일 모두 독립적이고 당당한 여성상을 제시하고 여성의 욕망을 충실히 재현했다는 긍정적 평가와 서구자본주의 세계를 모방하는 소비적인 삶을 무비판적으로 복제한다는 부정적 시각이 엇갈리는 것이다. 그 때문에 인터넷담론에서는 허세소비, 베블린 효과를 강화시킨다는 '된장녀담론'으로 비판되곤 한다. 이것은 국경을 넘어서는 문화번역으로서의 칙

성이자 모든 삶의 전제 조건이 되고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여성, 문학을 가로지른다』, 문학과지성사, 2005, 238쪽)

- 4) 소비사회에서 여성의 주체성과 관련한 연구로는 다음의 연구들이 있다. 정혜경, 「한국 현대소설에 나타난 여성 정체성의 변모과정 연구」, 부산대학교박사논문, 2007; 이정연, 「부상하는 소비대중문화 현상으로서의 '한국형 칙릿(Chick-Lit)'의 등장과 새로운 여성주체의 가능성」, 경희대석사논문, 2009; 홍윤정, 「한국형 칙릿 소설 연구-정이현, 백영옥, 서유미의 작품을 중심으로」, 명지대학교석사논문, 2012; 김윤희, 「정이현 소설 연구-후기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여성의 욕망을 중심으로」, 한국교원대석사, 2013 등.
- 5) 이에 대해서는 이정연·이기형, 「'칙릿'소설, 포스트페미니즘, 그리고 소비자본주의 사회의 초상」, 『언론과 사회』7, 2009, 88~90쪽.
- 6) Susan J. Douglas, *Enlightened Sexism, The seductive message that feminism's work is done*, Times books, NY, 2010, p.16.

릿이 근본적으로 가지는 장점이자 한계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에 소개된 외국의 작품들 중 칙릿의 분위기를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영화나 드라마는 모두 백인 전문직 여성이 주인공이다. 뉴욕의 분위기와 마블로블로닉의 하이힐을 신은 그녀들이 이 장르의 태생적 선망대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칙릿 장르는 늘 여성의 허영심을 반영하는 무국적성, 무성찰성의 대중장르로 폄하되곤 한다. 그러나 정이현의 작품들은 이러한 욕망이 단순히 모방된 욕망이 아닌 내면화된 삶의 양식임을 잘 보여준다. 그리고 그 욕망을 단순히 비판하거나 선불리 계몽하려하지 않는다.<sup>7)</sup> 그 때문에 그의 작품들은 부정에서 긍정의 세계로 나아가지 않는다. 답답하리만치 위악과 자기풍자의 세계를 순환하고 있다. 그러한 특징이 소비사회를 살아가는 현실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 판단된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정이현 칙릿의 특징을 분석하여 우리나라에서 변형 생산된 칙릿이 현실반영의 장르로서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를 밝히고자 한다.

정이현의 칙릿은 두 가지 특성으로 분석할 수 있다. 첫째는 중심모방의 욕망과 그림자조차 없는 헛것이라는 현실 인식이 팽팽하게 그려지는 작품세계이다. 둘째는 그 세계를 살아가는 여성들의 몸을 통해 그 욕망과 그림자가 각인되는 인물들의 특성이다. 첫째 특성은 특히 그녀의 작품이 대중적으로 성공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볼 수 있는 이국적 분위기 혹은 탈국경적 스타일로 드러난다. 텍스트의 공간이 구체성 대신에 탈국경적이고 화려한 패스티시의 세계로 구성된다. 둘째는 여성의 '몸'에 대한 두 개의 관점인 육체자본과 매력자본의 관점이 팽팽하게 인물을 구성하고 있다. 이 두 개념은 여성의 몸에 대한 페미니스트들의 전통적 관점 즉 여성육체의 대상화, 상품화에 대한 비판적 관점과 이를 거부하고 여성성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자기 자본으로 활용하는 새로운 관점의 대립을

7) 박선경은 정이현 소설에 나타난 여성성의 증식과 변이 과정을 추적하면서 여성성에 대한 긍정과 성장의 과정으로 해석하지만 오히려 정이현 작품의 특징은 긍정적 전망을 선부르게 제시하지 않는다는 점이라 생각된다. 『페미니즘 이론과 문학에서의 여성성 증식과 변이의 과정』, 『어문학』121, 2013.)

설명해주는 개념이다. 인물들은 자신의 몸을 적극적 자본으로 사용하기도 하지만 또 주체정립의 장으로서 몸에 대한 자각 또한 버리지 못 한다. 텍스트의 공간구성과 인물구성의 특징을 분석해 보면 문화번역으로서의 칙릿이 중심세계와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 2. 중심모방과 그림자 도시의 헛것 이미지-『달콤한 나의 도시』

칙릿은 2, 30대 독신의 여성주인공들을 주로 등장시켜 그들의 일과 사랑을 다루는 장르로, <섹스 앤 더 시티>와 <브리짓 존스의 일기>의 선풍적인 인기와 함께 새로운 여성소설 장르로 떠올랐다. 젊은 여성을 칭하는 속어 ‘치크(Chick)’와 문학의 약어 ‘릿(Lit)’를 결합한 이 용어는 1995년 크리스 마자(Cris Mazza)와 제프리 디셸(Jeffrey Dessel)이 편집한 『포스트페미니스트 소설』(Postfeminist Fiction)에서 처음 사용되었다고 한다.<sup>8)</sup> 영화, 패션, 음식, 건축 등 도시적인 배경과 소비적인 삶이 제3의 주인공이라 불릴 만큼 작품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로 사용되는 이 장르는 일정한 서사문법을 반복하는 대중적 장르소설에 해당한다. 즉 2, 30대의 경제력을 갖춘 독신의 여성들이 주인공으로 그들의 연애, 성, 결혼, 일을 둘러싼 갈등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이야기이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담론적 특징은 다양한 소비목록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다.<sup>9)</sup> <섹스 앤 더 시티>에서는 뉴욕의 카페테리아가 네 명의 주인공들이 우정을 쌓고, 일상을 나누고, 글을 쓰고, 밥을 먹는 장소로서 작품의 가장 중요한 공간성을 상징하듯이 칙릿은 공간이나 자동차, 의상, 음식들

8) 칙릿의 개념은 남희진, 「칙릿: 여성 대중서사의 한계를 넘어서」, 『새한영어영문학』 52, 2010, 52~55쪽 참조. 이 글에서는 Suzanne Feriss eds, *Chick-Lit: The New Woman's Fiction*(Routledge, 2006)의 칙릿 개념을 소개하고 장르적 특성을 설명하고 있다.

9) 김예림, 「문화번역 장소로서의 칙릿」, 『언론과사회』17, 2009, 49쪽.

이 이야기보다 더 중요한 담론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의 소비생활과 소비목록은 실제 인물들의 욕망을 매개하고 삶을 추동하는 기제로 작동한다. 소비목록에 대한 그들의 욕망은 마놀로블로닉 하이힐이거나 루이비통 가방, 폭스바겐 자동차 등등 너무도 구체적인 것이어서 막연한 부에 대한 욕망이 아니라 패티시적인 편집증으로 드러난다. 이러한 소비에 대한 강한 집착은 여성인물들이 물질적, 성적으로 보다 당당하게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가꾸고 계발하는 자아성취와 관련되어서 더욱 강화되고<sup>10)</sup> 자연스럽게 작품의 제3의 주인공이 된다.

정이현 소설의 공간이나 그 공간을 채우는 소비목록은 탈국경적 독서 목록을 통해 유입되고, 이 작품의 배경적 분위기를 형성한다. 최근 독자들이 인터넷이나 드라마, 영화를 통해 접하는 다양한 독서체험은 실제 우리 삶의 구성도 탈국경적 상상력으로 채워넣게 하는데, 정이현의 『달콤한 나의 도시』가 대중적인 인기를 누린 이유는 이러한 변화된 독서 체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통적인 작품들에서도 책의 제목이나 주인공 이름 등을 차용하여 작품을 쓰기도 하지만 이때의 독서목록은 주로 자신의 사상이나 철학을 드러내기 위한 장치의 하나였다. 책은 진지함의 대상이었고, 그 책이 지닌 아우라는 근대인의 표상이었다.

그렇다면 『달콤한-』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 작품의 독서 체험은 작가의 사상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인물의 삶을 구성하는 인물구성의 한 방법으로 등장한다. 이 작품의 주인공인 서른 한 살의 싱글 오대리, 오은수는 심심할 때 우라사와 나오키의 『20세기 소년』을 읽고, 인간관계를 생각할 때는 에쿠니 가오리의 『반짝 반짝 빛나는』(김난주 옮김, 소담, 2002)을 떠올린다. 그리고 자신이 살고 싶은 이국의 도시를 꿈꿀 때는 뉴욕의 그녀들(캔디스 부시넬의 인기 칼럼을 각색한 드라마 <섹스 앤 더 시티>의 그녀들)이 부러워진다.

우라사와 나오키, 에쿠니 가오리는 우리 나라에서 번역된 일본 만화와

10) 모현주, 『2,30대 고학력 싱글 직장 여성들의 소비정치학』, 연세대석사, 2007, 102~107쪽.



소설을 대표하는 작가들이다. 우라사와 나오키는 젊은 세대라면 누구나 한 번쯤 읽었을 만한 『몬스터』, 『마스터 키튼』 등의 작가이다. 지적인 만화라 평가되는 그의 작품들은 고고학과 과학적 상상력이 어우러지는 내용으로 많은 매니아층을 형성하고 있다. 특히 『마스터 키튼』은 고고학 전공인 영국 특수부대 출신의 주인공이 보험사 조사원을 하면서 사건들을 풀어나가는 이야기 구조를 지니고 있고, 『달콤한-』에 등장한 『20세기 소년』은 어린 시절 예언서를 만들었던 친구들의 상상력이 현실화되면서 지구 파괴의 음모가 전개되는 과학적 상상력을 줄거리로 하고 있다.

이러한 만화가 지적이고 논리적인 서사를 표방하고 있는 반면에 에쿠니 가오리의 소설은 오히려 감성적 인식을 바탕으로 줄거리를 풀어나가고 있다. 이 작품들을 읽을 때면 만화와 소설의 아이러니한 역전이 느껴지곤 한다. 『반짝 반짝 빛나는』은 게이인 무츠키와 결혼한 알콜 중독자 쇼코, 그리고 무츠키의 애인 곧 세 사람의 기묘한 결혼방식이 서사의 중심이 된다. 특히 등장하는 인물들의 관계 방식이 독특한데, 남편을 사랑하게 된 아내와 게이 남편의 애인 사이에서 기대되는 상식적인 갈등은 이 작품과는 거리가 멀다. 이들은 마치 서로의 슬픔에 기대고 있는 세 명의 삼쌍둥이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 차이에 대한 공포가 폭력을 만들어내는 현실의 구조와는 정반대의 세계여서 이 작품은 마치 동화 같은 느낌을 주고 있다. ‘반짝 반짝 빛나는’이라는 제목도 동화적 이미지를 도드라지게 한다.

<섹스 앤 더 시티>는 앞의 두 작품에 비하면 좀더 현실적인 이야기들이 소재이고, 독신 여성들의 일과 사랑을 다루어 우리 독자들에게도 상당한 공감을 얻은 경우이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이 작품의 주인공은 인물이 아니라 패션이다. 전시관 속의 화려한 인형들처럼 주인공들의 생활과 공간은 철저히 디자인되어 있고 그 때문에 사랑과 일이 고민스럽고 고달프다고 외쳐대지만 현실의 삶으로 얽혀들지 않게 된다. 현실을 고통과 분리시킬 수 있는 안전장치를 충분히 마련하고서야 현실의 주제를 다룰 수 있는 게 이 작품의 특징이랄 수 있다.

이처럼 인물구성이 탈국경적 소비목록으로 구성될 때 작품은 ‘다국적성’, ‘혼종의 감성’을 특징으로 하게 되며, ‘무중력(무국적)의 소설공간’을 구성하게 된다. 이 소비목록들을 익히 알고 있는 독자들은 한편으로는 그러한 문화적 취향을 공유한다는 은밀한 만족감을 느끼는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무비판적 모방에 일정한 자의식을 견지하는 독서경험을 하게 된다. 그 때문에 칙릿은 국경을 넘나들며,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 차단 장치, 패션화된 삶의 기획이 무너지는 순간 현실은 텍스트 내부로 스며들어 삶의 고통을 드러내게 된다. 텍스트 여기저기에서 차이가 위계가 되고, 갈등과 고립의 위험성이 균열을 일으킬 때 우리의 독서는 현실과 마주하는 고통스러운 일이 된다. 이러한 정면대결을 피하고 싶은 현대인들의 욕망이 현실을 다루되 현실에 연루되지 않을 수 있는 차단장치가 있는 작품들의 안전한 소비로 드러나게 된 것이다. 칙릿의 독서가 패션처럼 기호품이 될 수 있었던 것도 이러한 디자인된 현실을 다루기 때문일 것이다.

정이현의 작품은 탈국경적 독서 체험의 변화를 정확히 짚어내기 때문에 대중적 공감을 불러일으킨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독서 체험을 바탕으로 구성된 인물들과 그러한 인물들이 사는 새로운 세계가 신세대들의 감성에 호소하는 측면이 대중성의 기반이 된 것이다. 『달콤한-』은 글로벌한 독서 체험을 통한 모방적 삶을 인물들의 성격화방식으로 채용할 뿐 아니라 작가 자신도 칙릿이라는 장르소설의 구조를 모방하고 있다. 모방 자체를 무조건 부정하는 시대는 이미 지나버린 것 같다.

나는 상상한다. 1975년 5월 25일 오후 두 시, 대한민국 수도 서울 한 귀퉁이의 작은 산부인과가 아닌 전혀 다른 곳에서 태어난 나를. 스톡홀름, 상파울루, 뉴욕, 에든버러, 프라하, 이스탄불, 베를린, 로마, 암스테르담, 칼라룸푸르, 마드리드, 토론토, 부에노스아이레스. 아득하고 떠나면 이국 도시들의 이름이라면 앓은 자리에서 수십 군데는 댈 수 있다. 스톡홀름의 나, 뉴욕의 나, 칼라룸푸르의 나,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나. ‘그녀’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49쪽)

이국적 정서를 불러일으키는 수많은 도시들의 이름과 도플갱어처럼 이국의 도시들에 사는 ‘나’인 그녀들은 이미 동질성의 삶을 살아가는 모방적 세계의 동반자들이다. 이를 반영하듯 그녀의 소설도 모방적 세계를 특징으로 하고 있다. 서사 구성은 매우 단순하다. 서른 한 살의 주인공과 두 명의 여자 친구 유희와 재인, 그녀들의 상황 설정도 익숙하긴 마찬가지이다. 오은수는 우연히 만난 연하남과 소개로 만난 안정된 연상남 김영수 사이에서 갈등하는 상태이고, 유희는 이혼남이 된 첫사랑과 결혼하였으나 남편의 전부인과 아이 때문에 갈등하고 있다. 재인은 속물적인 결혼을 하였지만 실패하고 이혼녀가 된다. 세 명의 여자 친구가 일과 사랑 사이에서 갈등하는 이야기는 칙릿의 전형적인 상황이라 볼 수 있다. 매우 익숙하게 느껴지는 에피소드들도 여기저기에 배치되어 있다. 20대의 젊음에 대한 질투, 게이 남자 친구에 대한 호기심, 핸드폰과 문자로 구성되는 관계 방식, 사회생활 7년차의 노련함과 타협의 냄새 등등 친숙한 에피소드들을 따라 읽어가다 보면 편안하지만 조금은 지루해진다.

나쁜 번역자의 특질은 문학을 정보로서 번역 전달하려는 것이라면, 진정한 번역가의 임무는 자신이 번역하는 언어에 원전의 메아리가 생산해내는 효과를 찾아내는 것<sup>11)</sup>이라고 한다. 원전의 메아리가 서로 다른 문화적 맥락에서 만들어내는 정치적 효과를 찾아내는 것이 번역가의 임무라면 창작과 번역의 경계짓기가 어려운 시대에 창작자 역시도 그 임무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정이현의 소설은 모방에 정면 승부를 걸고, 단순 모방이 지니는 허상에 대한 문제의식을 보여주고 있다.

솔직히 나도 가끔씩 내가 ‘오은수’를 흉내내며 사는 건 아닐까 궁금해요 내

11) Walter Benjamin, The task of the translator, *Illuminations*, Schocken Books, 1984, 69, p.76.

이름이 오은수가 맞는지, 내 이름과 진짜 나 사이에 뭐가 있는지……;-)(434쪽)

흥내내며 사는 것, 모방과 자신의 정체성 사이에서 고민하는 것은 주인공의 고민이자 작가의 고민일 것이다. 모두가 동일한 무국적한 삶을 살아가는 세계에서 ‘나’라는 정체성이 과연 가능하거나 한 걸까. 이 고민을 진전시키기 위해 정이현은 이름조차도 평범한 김영수라는 인물들 등장시킨다. 어느모로 보나 평범하기 그지없는 김영수는 오은수에게는 삶의 기준점이 된다. 그러나 그는 17살에 사고로 사람을 죽이고 김영수라는 거짓 이름으로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살고 있는 인물로 판명된다. 자신의 삶의 기준점으로 삼았던 평범함 “그 기준 자체가 헛것”(418쪽)임을 깨닫고 그녀는 자신이 마지막으로 기대고 있던 아주 견고한 무엇인가가 흔적도 없이 스스로 녹아내리는 것을 느낀다. 모방적 삶이 지니는 견고한 허상을 드러내는 순간이다. 실체가 없이 모방적 삶만이 존재하는 현대인들의 삶의 공간을 그녀는 그림자 도시라고 말한다.

그림자는 빛이 만들어낸 허상이다. 세상의 모든 실체들이 저마다 하나씩의 그림자를 드리우고 살듯이, 세상의 모든 그림자들은 저마다 하나씩의 실체를 가지고 살아간다. 그림자가 없는 것은, 그림자뿐이다. 그렇다면 바로 저기, 그림자 없이 반짝반짝 빛나는 도시 서울은 어쩌면 거대한 그림자 그 자체인 것은 아닐까. 내가 이 그림자 도시 귀퉁이에 빛 없이 숨어사는 한 뼘 그림자인 것처럼.(373쪽)

‘반짝 반짝 빛나는’ 도시 서울이 그림자가 없는 이유는 그림자 자체가 기 때문이라는 진술에서 작가는 ‘나’라는 실체를 가지기 어려운 우리 삶의 양식을 보여주고 있다. 나 역시도 도시 귀퉁이에 숨어사는 그림자 한 조각이며, 모방적 삶의 양식을 살고 있는 허깨비임을 인식하기에 이른다. 그리고는 세상을 향해 다시 시작하는 출발점에서 끝을 맺고 있다. 그림자 도시에 대한 자의식은 정이현의 칙릿이 단순 모방적 작품들과 달리 문화

번역으로서 국경을 넘어 생명력을 갖는 이유일 것이다. 중심세계에 대한 욕망은 그 욕망의 대상인 뉴욕커 역시 살인적인 물가와 집세에 시달리고 뼈빠지게 벌어 카드 값으로 다 바쳐야 한다는 숨은 진실(52쪽)을 알고 있는 주인공에게 이미 거짓 명품의 세계와 같은 의미가 된다.

모방적 삶에 대한 고민은 『낭만적 사랑』의 주인공 유리가 자신의 첫날 밤 대신 선물로 받은 루이비통 가방이 ‘짜퉁’(모조품에 대한 속어)일까 의심하는 대목과 연결되어 있다. ‘짜퉁’일까를 의심하는 순간 절대적이고 견고한 신념은 모두 무너져 내린다. 그림자도시, ‘짜퉁’의 세계를 살아가는 여성들에게 자신들의 주체구성은 가능한 것일까. 이 질문이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소설들이 『낭만적 사랑과 사회』에 실린 작품들이다.

### 3. 몸을 통해 각인되는 욕망과 그림자-『낭만적 사랑과 사회』

정이현 작품에서 주체구성의 문제는 ‘냉소적 주체’ 혹은 ‘나쁜 주체’라는 개념으로 논의된 바 있다. 냉소적 주체란 이데올로기의 허상을 알면서도 이데올로기 외부를 상상하지 못하는 주체라 정의할 수 있다.<sup>12)</sup> 이들은 그간의 페미니즘 소설들이 구현하고자 했던 성장하는 주체와는 전혀 다르다. 남성중심 사회의 허위의식을 벗고, 자신만의 오롯한 주체로 서고자 했던 기왕의 페미니즘 소설 인물들과는 달리 정이현 소설의 인물들은 남성중심 이데올로기의 완결된 수행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내는 인물들이다. 위장된 가면을 쓰고 여성성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자신을 몸을 기꺼이 결혼과 신분상승의 도구로 사용한다. 『낭만적 사랑과 사회』의 유리, 『트렁크』의 주인공 그녀, 『순수』의 이경옥들이 그러한 주인공들이다. 순결을 결혼을 위한 자산으로 여기거나(『낭만적~』) 성공을 위해 상사와

12) 이경진은 『속물들의 윤리학』(『창작과비평』, 2008.12)에서 슬로터다이크(P. Sloterdijk)의 냉소적 주체 개념을 인용하여 이데올로기의 허상을 알면서도 이데올로기 외부를 상상하지 못하는 주체로서의 특징을 분석한 바 있다.(429쪽)

내연의 관계를 맺거나(『트렁크』), 자신의 아름다움으로 세 번의 남편을 얻거나(『순수』) 하는 이 인물들은 적극적으로 여성성을 발휘하고 여성의 육체도 거래도구로 사용<sup>13)</sup>한다. 그러나 『트렁크』와 『순수』같은 작품에서 인물들은 태연하게 살인을 저지르고 점점 강대해지는 그녀들의 힘은 살인조차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일처럼 사라지게 한다. 그로테스크한 이미지의 잔혹동화를 연상시키는 작품들을 통해서 정이현은 현실 여성들의 지지부진한 삶의 이면에 존재하는 강한 힘에 대한 어두운 욕망을 보여준다.

그러나 현실은 『신식 키친』의 서른 살 이은경이거나 『소녀시대』의 열여섯 살 소녀이거나 『홈드라마』의 신혼부부이거나 모두 지지부진한 삶에 묶여 있다. 비만과 불임에 남자친구마저 떠나버리는 서른 살 여성이거나(『신식 키친』) 아버지의 원조교제 사실을 알고 남자친구와 공모해 돈을 뜯어내 임신한 아버지의 여자친구 수술비를 대거나(『소녀시대』), 복잡한 절차와 파탄의 위험을 뚫고 결혼한 신혼부부가 성병(『홈드라마』)에 걸려 있거나 현실의 여성들은 조금씩 병들어 있고, 삶의 진실에 지쳐있다. 『신식 키친』의 주인공은 서른 살, 비만과 불임에 시달리고 다이어트에 대한 강박증을 갖고 있다. 바비인형이 되고 싶고 할리퀸로맨스를 꿈꾸지만 현실은 “자궁 안에도 기름 덩어리들이 켜켜이 쌓여 있을”(181쪽) 것만 같은 공포증을 지니고 있다.

바비Barbie 1957년 미국 TOY FAIR에서 태어난 바비 인형은 이제 전 세계 소녀들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바비는 세계 소녀들이 당당하

13) 크리스 윌링, 임인숙 역, 『몸의 사회학』, 나남출판, 1999, 186~189쪽. 소비시대의 자기계발은 능력의 증대만이 아니라 육체의 매력을 증가시키는 노력과 맞물려 있는데, 이를 부르디외의 '육체자본'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육체자본을 생산한다는 것은 사회분야에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몸을 계발한다는 것을 뜻한다." 몸은 계급의 상징물이 되었다. 걸거나 코를 풀거나, 먹고 마시고 말하고 등등 몸을 통해 자신의 취향을 반영하고 계발한다. 아주 자연스럽게 느껴지지만 이러한 취향은 몸을 통해 드러나는 계급문화이다.

고 아름다운 여성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꿈과 희망을 불어넣어줍니다.(183쪽)

헐렁한 실내복 원피스를 벗고 화장대 거울 앞에 선다. 유방은 몰락한 왕의 무덤처럼 거대하고 황폐하다. 검게 착색된 젓꼭지, 삼각 팬티의 밴드 바깥으로 불룩하게 비어져 나온 허리 살, 생명을 품어 본 적 없는 늘어진 뱃구레까지. 눈 한번 깜빡이지 않고 그녀는 제 몸을 본다. 어떤 슬픔이나 비애도 없이.(191쪽)

위 예문에서 대비되는 것처럼 바비인형이 전해주는 꿈의 전령과 그녀들의 추레한 육체는 결코 화해하지 못 한다. 정이현 소설의 주인공들은 자신의 육체와 화해하지 못 하고 균열된 주체로 파편화되고 있다. 『달콤한 나의 도시』가 칙릿의 장르적 특성을 띠고 있어서 패션화된 삶이나 낭만적 사랑의 측면에 더 많은 담론적 비중을 할애하고 있다면, 이 작품들은 그림자도시의 이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세계 소녀들에게 당당하고 아름다운 여성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바비 인형의 꿈은 그녀들의 식이장애와 몸에 대한 강박증을 불러온다. 「신식 키친」의 그녀는 수많은 다이어트 비법의 맹신자이며, 「트렁크」와 「순수」의 그녀들은 완벽한 사이즈를 유지하기 위해 토하고, 먹고를 반복하고 있다. 몸과 화해하지 못하는 그녀들은 몸을 육체자본으로 사용하는 우리 시대 여성들의 초상이다.

「낭만적 사랑과 사회」는 『달콤한 나의 도시』의 환상, 그림자 도시의 뒷면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주인공 스물 두 살 대학생 유리의 이야기는 “나는 레이스가 달린 팬티는 입지 않는다. 고무줄이 헐렁하게 늘어나고 누렇게 물이 빠진 면 팬티는 말하자면, 나의 마지막 보루다.”(9쪽)로 시작된다. 누런 면 팬티는 순결을 지키는 장치이고 그녀는 순결을 연애자본으로 생각하는 인물이다. “고진감래(苦盡甘來)! 참고 기다리며 지키면, 결국은 달콤한 열매를 얻게 된다.”(17쪽) 임신한 친구 헤미를 보며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폐를 아직 손에 쥐고 있을 때 최대한 신중할 필요”(22쪽)가 있다며 열심히 계산기를 두르려 본다. 헤미는 뉴비틀 폭스바겐을 사주

는 부자 아빠를 가졌지만 자신은 다르다. 반포의 27평 주공아파트에 겨우 입성한 중산층일 뿐이고 그녀가 가진 재산이라고는 육체뿐이다. 나는 친구 헤미처럼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아이들과는 다르다. “나는 혼자 힘으로 이 척박한 세상과 맞서야 한다. 진정으로 강한 여성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다.”(25쪽) 우리는 마침내 잡고 싶은 남자, 부유한 집 막내로 미국 로스쿨을 다니는 선으로는 만날 수 없는 존재를 만나게 된다. “마침내 내 인생 스물두 해를 걸고 배팅해볼 만한 남자가 나타난 것이다.”(27쪽) 첫날밤 십계명을 따라 그와 잠자리를 가졌지만 그러나 혈혼이 없다. 그가 선물로 건넨 루이뷔통백을 보며 그녀는 그 가방이 ‘짜퉁’이 아닐까를 의심한다. 그리고는 “유리의 성이 점점 멀어져가고 있다.”(35)로 끝을 맺고 있다. 그와 이루어지던 아니던 그 결과는 이 작품의 결말과는 별 상관없다. 그녀가 신앙처럼 지켜왔던 혈혼이 없다는 사실, 그가 건넨 가방을 ‘짜퉁’으로 의심한다는 사실은 자신이 꿈꾸었던 대상, 사랑이든 결혼이든 어떤 것이든 이미 대상으로서의 완결성을 상실한 것이다. 그러나 그림자 세계의 욕망 대상이 거짓의 세계로 판명이 난다해도 그녀들의 삶이 달라지거나 주체의 성찰로 나아가지 않는다.

일종의 우리 시대의 초상화에서 각자 맡겨진 역할을 연기하는 것일 뿐 성찰이나 성장을 직접적으로 보여주지 않는다. 그녀들은 모방의 세계 그림자 도시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매트릭스의 세계처럼 언뜻 언뜻 비치는 그림자의 흔적만이 있을 뿐이다.

이 부분이 정이현의 현실인식이라 할 수 있다. 매트릭스의 세계처럼 그림자 도시를 살고 있는 역할수행자들의 이야기가 그녀가 그리는 한국적 칙릿의 세계라 판단된다. 『흙드라마』라는 작품의 특성을 보면 기획된 가족 초상화에서의 등장인물들과 역할<sup>14)</sup>이 잘 드러난다.

14) 『사생활의 역사』4권 2부(미셸 페로, 새물결, 2002) 배우들에서는 각 시대마다 가족의 초상화를 보면 가족에 대한 기획과 각각의 등장인물들의 역할을 분석할 수 있다고 한다.



등장인물

남자: 김재호. 회사원. 730503-10258XX. 서울시 성동구 옥수동 강변하이츠 101동 140X호.

여자: 박수진. 회사원. 750910-200661XX.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현대아파트 215동 50X호

(147쪽)

이 작품은 한 쌍의 남녀가 결혼을 하는 이야기를 프롤로그-발단-전개-위기-절정-결말-에필로그의 형식으로 전개하고 있다. 마치 한 편의 극처럼 진행되는 결혼 이야기는 등장인물로 소개된 그들의 프로필만 보아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보통의 결혼과정을 보여준다. 상견례, 혼수와 예단, 결혼식장과 식사접대, 신혼여행까지 몇 번의 파국을 넘어 결혼에 이르는 과정에서 인물들은 마치 결혼식이라는 역할극에 등장한 인물처럼 느껴진다. 어떤 인물을 대체해서 집어넣어도 약간의 디테일의 차이일 뿐 똑같은 전개를 반복할 것만 같은 역할극이다.

이처럼 그녀의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정해진 각본을 따라 적극적으로 여성성의 역할을 수행할 뿐 어떤 성찰도 윤리적 검열도 하지 않는다.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차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여성으로서의 육체를 사용하고 여성성을 최대한 매력자본으로 증식시킬 뿐이다. 외부 이데올로기에 각인된 육체와 냉소적 주체는 어떤 이데올로기의 외부도 꿈꾸지 않는 것이다.

#### 4. 자본으로서의 몸에 대한 자기 풍자

앞서 살펴본 정이현 소설의 여성인물은 몸과 관련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여성의 매력자본을 증식시키고 활용하는데 적극

적인 새로운 세대의 등장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소비사회에서 노동보다 소비가 더 그 사람의 정체성을 말해주는 신인류의 인간형으로서 특히 여성들은 자신들을 가꾸고 매력자본을 키우는 일에 적극적이다. 칙릿이 주목한 여성주인공들이 이러한 소비주체로서의 여성들이다. 이들이 적극적으로 평가되기 시작한 배경에는 이들의 당당함과 솔직함, 자기결정권의 증대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페미니즘의 영향 또한 자리잡고 있다.

90년대 중반 이후 등장한 포스트 페미니스트들은 여성다움에 대한 재평가를 강조했고, 1세대 페미니스트들의 여성성 억압을 비판하기 시작했다. 여성성의 회복으로 남성중심사회의 가치 전복을 꿈꾸었고, 여성의 매력이 여성적 권력을 획득하는 자산이 될 것이라는 주장까지 등장하였다. 각성한 섹시즘(enlightened sexism)<sup>15)</sup>은 페미니즘 덕에 여성은 충분히 진보했고 평등이 성취되었으므로, 이제는 재미로 소녀들, 여성들의 성적 고정관념을 부활시켜도 좋다고까지 주장한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여성평등권이 침해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계산된 여성 이미지(얼굴표정, 몸, 유혹, 섹슈얼리티)를 통해 진정한 파워, 재미로서의 파워를 얻는다는 방송들이 쏟아져 나온다. 이제 다 가졌으니 시간과 에너지를 외양에, 남성 유혹에, 핫한 것에 쏟으라고, 다른 여성들과 경쟁하고 쇼핑을 하라고 강조한다.<sup>16)</sup> 영국의 사회학자 캐서린 하킴의 '매력자본'(erotic capital)<sup>17)</sup>이라는 책이 그러한 주장의 중심에 있다. 이성을 매

15) Susan J. Douglas, 앞의 책, pp.9~19. 수잔 더글라스는 '각성한 섹시즘'이란 섹시함이 자기 개발의 한 요소이자 성공전략의 한 방법이 되었음을 의미하는 개념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바비인형처럼 보이면서 글로리아 스타이넘(미국 최초의 여성운동잡지 '미즈(Ms.)'의 창간인, 여성운동가) 처럼 되고 싶다는 아이러니한 개념을 받아들이는 것이라 비판하고 있다.

16) 위의 책, 9쪽.

17) 캐서린 하킴, 이현주옮김, 『매력자본』, 민음사, 2011. 19~28쪽. 이성을 매료시키는 여성의 외모와 태도 즉 매력자본이 경제자본이나 문화자본, 사회자본 만큼의 이익을 창출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 저자는 부르디외의 경제자본(자본, 토지 등 재정적인 이득을 발생시키는 자원과 자산의 총합), 문화자본(교육을 통한 인적자본과

료시키는 여성의 외모와 태도 즉 매력자본이 경제자본이나 문화자본, 사회자본 만큼의 이익을 창출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 저자는 부르디외의 경제자본, 문화자본, 사회자본 외에 매력자본을 추가하였다. 부르디외의 육체자본이 경제와 문화의 계층을 상징하는 종속적 개념이라면 하킴은 매력자본도 자산가치를 창출하는 자율적 가치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연예인의 예나 여성의 성공 사례를 보면 실제 이성을 매료시키는 외모와 태도가 경제자본이나 사회자본 만큼의 이익을 창출한다는 것이다. 특히 매력자본은 여성의 유리한 자산인데 남성의 성욕망이 여성에 비해 크기 때문에 수요공급관계에서 여성이 우월한 위치에 설 수 있는 자산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지식자산만을 인정하고 신체적자산을 무시하는 페미니스트들의 관점은 가부장제에 동조하는 셈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외모를 가꾸고 매력지수를 올리는 노력이 자기발전의 중요한 요소라는 주장은 신체적 가치를 인정하고 외모가꾸기에 대한 자기비하를 털어버릴 수 있는 이념적 토대가 된다.

정이현의 인물들은 이러한 매력자본의 증식이라는 신념을 철저히 수행하는 인물들이다. 매력자본의 증식과정과 의미를 정면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그녀의 소설은 소비주체로서의 여성이 존재하는 방식을 세밀하게 다루고 있다. 그러나 그들이 처한 현실은 무성찰의 역할수행일 뿐 사랑도 결혼도 성공도 돈도 아무런 감정 없이 교환되는 재화일 뿐이다.

브랜든이 계산을 하는 동안 그녀는 화장실로 가 방금 먹은 음식을 모두 토했다. 십오 년째 웨이트 사이즈 26을 유지한다는 건 보기보다 성가시고

---

문화적 지식과 문화적 가공물의 총합), 사회자본(인맥, 사회적 관계 자산) 외에 매력자본을 추가하였다. 부르디외의 육체자본이 경제와 문화의 계층을 상징하는 종속적 개념이라면 하킴은 매력자본도 자산가치를 창출하는 자율적 가치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어려운 일이었다. 공들여 양치를 하고 립스틱을 다시 바른 다음 휴대전화의 음성 메시지를 확인했다. 세 개 모두 권의 목소리였다. 그 새끼랑 있는 건 아니지?…… (중략) 요사이 권은 예민한 데다 극도로 유치해져가기까지 했다. 권의 내심을 모르는 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서포트가 없었다면 그녀가 지금의 직함을 갖는 데 훨씬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으리라고 믿고 있었다.(49쪽)

정이현의 칙릿이 정면으로 다루고 있는 주제는 육체를 거래의 자본으로 사용하는 여성들이 만들어내는 욕망의 도시이고 그 도시는 그림자 없는 헛것이라는 인식이다. 하지만 이들은 자기풍자의 세계에 갇혀 있을 뿐 「신식 키친」, 「트렁크」, 「순수」의 그녀들 모두 어떤 슬픔이나 비애도 없다. 몸을 자본으로 단련시켜온 그들에게 감정이나 정서의 구조는 사치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냉소적 주체에게 풍자의 세계를 뚫고 나오는 가능성은 없는 것일까. 정이현의 한국적 칙릿은 비극적 결말로 폐쇄된 세계일까. 매트릭스의 세계에도 현실의 그림자는 언뜻 언뜻 비치는데, 『낭만적 사랑과 사회』의 작품집에 특이하게 배치되어 있는 「무궁화」라는 작품이 그러하다. 동성애를 소재로 삼고 있는 이 작품에서 여성의 육체는 이념적 각인 효과 이전의 날것의 체험으로 등장한다. 그리고 여성인물은 자신의 육체를 어떤 무엇이 아니라 체험 그 자체로 받아들이는 대목이 묘사된다.

아랫도리로부터 생리혈이 왈각왈각 게워져 나오고 있다. 실내복 원피스를 배꼽까지 걷어 올리고 한 손을 팬티 속으로 집어넣는다. 생리대와 맨살 사이에 펼쳐진 네 손바닥, 그 위로 몽클한 핏덩어리들이 쏟아져내린다. 따듯하다. 꿈속에서 너는 창문 너머 펼쳐진 수만 송이 장미들을 보았다. 바람 곁에 하르르 몸을 떠는 선홍빛 꽃 이파리들(133쪽)

자기 육체와 대면하는 이 대목에서 주인공은 생리혈을 공포도 더러움

도 아닌 선홍빛 꽃 이파리들로 받아들이다. 자신의 몸과 대면하고 화해하는 것. 정이현의 칙릿이 어둠과 냉소를 담고 있음에도 언뜻 비치는 이러한 파격적인 자기모색이 있어서 냉소적 주체는 갇힌 세계를 빠져나올 가능성을 보여준다. 동성애인과 사랑을 나누는 장면에서도 몸은 너와 그녀의 놀이터이고 평화로운 장소로 경험된다. 기존의 남성중심 이데올로기에 각인된 여성의 몸과는 전혀 다른 방식의 몸의 경험이 묘사되는 것이다.

우리 문학에서 상당히 파격적인 묘사로 생각되는 이런 대목이 정이현 소설의 한국적 칙릿이 보여주는 특징으로 판단된다. 모방의 세계에 갇힌 인물들이 맨얼굴의 몸과 만나는 것, 그리고 화해하는 것이 그리 쉽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폐쇄되지는 않는 몸의 경험이 정이현의 작품이 제시하는 현실인식일 것이다. 아쉽게도 이 작품 외에는 찾아볼 수 없어서 각인효과 이전의 몸 자체와의 대면이 가능할지는 이후 작품들을 좀더 면밀히 분석해보아야 할 것이다.

## 5. 마무리말

칙릿은 문화번역으로서의 의미를 지닌 장르이다. 미국의 시리즈물인 <섹스 앤 더 시티> 류의 작품들이 소개되면서 한국 소설계에도 등장한 이 장르는 늘 ‘된장녀 담론’이라는 비판과 ‘여성성장서사’라는 옹호가 대립되어 왔다. 이 논문에서는 정이현 장편 『달콤한 나의 도시』와 소설집 『낭만적 사랑과 사회』를 대상으로 칙릿의 한국적 변용을 살펴보았다. 이 장르는 탈국경적 장르소설로 서구 주류사회의 성공한 여성들을 모방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태생적 한계를 하고 있다. 그러나 정이현의 칙릿은 모방적 삶을 그림자도시로 그려내고 그림자의 세계에 갇힌 여성인물들을 냉소적 주체로 그려내는 방식으로 새롭게 만들어내고 있다. 물론 그림자도시에서 모방적 삶을 살아가는 그녀들에게 이 세계의 밖을 상상할 수

있는 인식적 매개물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하여 충실한 역할수행자로서 여성성을 거래의 도구로 사용하고 매력자본을 증가시키는 데 심혈을 기울인다. 슬픔도 비애도 없는 냉소적 주체들은 주변부 여성현실에 대한 자조적인 자기풍자로 판단된다. 그러나 자기 몸과 화해하고 맨 몸의 육체를 대면하는 것으로 풍자의 세계가 폐쇄되지 않을 가능성도 엿보인다. 인식적 매개물이 존재하지 않는 대신 이데올로기적 각인 이전의 몸의 체험이 이들의 각성을 깨울 가능성이 제시된다. 낯것의 여성의 몸과 대면하는 묘사는 우리 문학의 전통에서는 상당히 과격적이고 낯선 방식이다. 정이현의 풍자세계가 닫히지 않고 역동성을 얻는 이유이다. 진정한 문화번역이 그대로의 번역이 아니라 국경을 넘어 달라지는 정치적 효과를 생산하는 것이라면 정이현의 칙릿은 주변부세계의 복제된 삶에 대한 자기풍자의 의미를 생산한다. 서구 자본주의에서 탄생한 칙릿의 소비주체로서의 여성에 대한 긍정이 주변부세계로 확장되면서 무성찰적인 모방적 삶으로 과장을 키워간다는 현실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 참고문헌

- 김예림, 『문화번역 장소로서의 칙릿』, 『언론과 사회』 17, 2009, 48~77쪽.
- 남희진, 『칙릿: 여성 대중서사의 한계를 넘어서』, 『새한영어영문학』 52, 2010, 51~74쪽.
- 모현주, 『20, 30대 고학력 싱글 직장 여성들의 소비의 정치학』, 연세대학교 석사논문, 2007, 1~118쪽.
- 박명숙, 『칙릿드라마의 스토리텔링 연구 -「달콤한 나의 도시」를 중심으로』, 『배달말, 2009』, 103~126쪽.
- 소영현, 『북 쇼핑 시대의 문학, <완득이>라는 낯선 영토』, 『작가세계』, 2008, 320~334쪽.
- 여건중, 『“대중적 페미니즘”과 새로운 리얼리즘』, 『비평과이론』 17, 2012,

177~194쪽.

- 이정연, 『부상하는 소비대중문화 현상으로서의 '한국형 칙릿(Chick-Lit)'의 등장과 새로운 여성주체의 가능성』, 경희대석사논문, 2009, 1~135쪽.
- 이정연·이기형, 『'칙릿'소설, 포스트페미니즘, 그리고 소비자본주의 사회의 초상』, 『언론과 사회』 17, 2009, 87~138쪽.
- 이지연, 『한국 칙릿의 전개 과정과 특질 연구』, 동국대석사논문, 2012, 1~53쪽.
- 이화정·김종덕, 『에로틱한 여주인공에 대한 여성 수용자의 욕망』, 『디자인학연구』24, 2011, 67~76쪽.
- 장미영, 『소설과 미디어콘텐츠의 상호매체성』, 『국어문학』 52, 2012, 255~286쪽.
- 장미영·이호준, 『문학작품 독자의 주관적 재미 요소 연구』, 『인문콘텐츠』 18, 2010, 73~100쪽.
- 정가영, 『한국의 칙릿 담론에 관한 연구: 재현과 현실 사이의 여성들』,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2007, 625~637쪽.
- 한수현, 『『오만과 편견』과 『브리짓 존스의 일기』에 나타난 '다아시매니아'와 사회적 인식』, 창원대학교석사논문, 2011, 1~38쪽.
- 홍윤정, 『한국형 칙릿(Chick-lit) 소설 연구: 정이현, 백영옥, 서유미의 작품들을 중심으로』, 명지대학교석사논문, 2012, 1~88쪽.
- Sung Eun Cho, "The Translation and Appropriation of Chick Lit in Korea", 『영미연구』18, 2008, 47~77쪽.

## Abstract

### Cultural translation of Chick-Lit in Korea : Jung Yi-hyun's novel

Lee, Sun-ok

This study tries to analyze so called Korean-style 'Chick-Lit' through a textual analysis of Jung Yi-hyun's novels, 『My Sweet City』(2006) and 『Romantic love and Society』(2003). Chick-lit, one of modern fiction's genre, deals with love, marriage, work, friendship and other features that lead success or create conflict in women's daily life.

Also this genre has a value as a cultural translation. Since this genre like "sex and the city" was introduced, in Korea, the opinions on 'Chick-Lit' have been sharply divided into two; the story of extravagant young women, called 'Doengang girls', and the womens initiation story. And so this study aims at being some possibility of new women discourse in terms of sexuality, marriage, consumption and desire in Korean-style chick-lit which is different from western one.

The writer, Jung Yi hyun, depicts the life of mimicry as "shadow city" and also depicts the women's characters that are captured in this shadow city as cynical subject. I think that this point is one of satires on modern women's life and situation including the writer's own life. On the other hand, Jung Yi-hyun's chick-lit novels as mimicry genre codes also suggest the solution to face their own life and body. If Chick lit produces political effect through the process of border-crossing cultural translation, her Novels as one



of Korean style chick lit creates the self satire on the situation which the minor copies the major.

Key words: Jung Yi-hyun, Korean-style 'Chick-Lit', cultural translation, postfeminism

